

우리밀식당 호응 크다

충북 영동에 두번째... 전국 곳곳 잇따라 계획

영동/황순구 기자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우리밀식당이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영동지역에 두번째 우리밀식당이 문을 열었다.

우리밀살리기 영동군지부(지부장 송기선)는 25일 회원 출자금 2천5백만원을 들여 영동을 계산리 농어촌진흥공사 영동지부 건물 지하에 50평 규모의 '밀수레 영동점'을 개업했다.

영동 우리밀식당은 우선 순수 우리밀로 만든 칼국수·수제비·해물전 등을 선보였으며 곧 우리밀막걸리·과전·토종돼지고기 등도 준비해 차림표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우리밀 소비와 수입밀 때문에 우리밀 맛을 잃은 지 오래인 국민들의 입맛되찾기운동 차원에서 각 지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식당은 대구·영동점에 이어 오는 9~10월 청주·순창·의정부·춘천점이 잇따라 문을 열게 된다.

특히 1호점인 대구 달서점은 49평 규모로 개업한 이래 하루 평균 3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밀이 도시민들 사이



여아하

에 확고히 자리를 잡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전망이다.

우리밀식당은 반드시 '밀수레'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운동본부가 전국 6천5백여 농가와 계약재배해 제분한 우리밀가루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사업비·인건비·이익금 배분 등은 지점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각 지점은 개인이 아닌 우리밀살리기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며 이익금의 10%를 다달이 우리밀연구소 건립기금으로 본부에 내야 한다. 본부는 이 연구소를 통해 종자개량과 육묘·식품가공 등을 연구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오는 연말께부터 우리밀로 만든 알코올 함량 38%의 증류식 소주를 각 지점에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